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장혜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기간	2017. 1. 15(일) ~ 2. 5(일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: 밴쿠버</p> <p>규모 및 시설: 적당하다.</p> <p>전체적인 분위기: 다들 친절하시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 9:00~10:30</p> <p>쉬는 시간 10:30~10:45</p> <p>수업 10:45~12:00</p> <p>점심시간 12:00~1:00</p> <p>수업 1:00~3:00</p> <p>으로 진행되며 15명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조별활동이 많습니다.</p> <p>수업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도중에는 영어만 사용해야합니다.</p> <p>실내 수업내용으로는 이메일 보내는 법, 문화차이, 캐나다 예의, first nation 등을 배웠습니다.</p> <p>교실에서 수업도 듣지만 오후에 야외 수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</p> <p>컬링, 박물관 관람, 스노우 슈잉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.</p>
Activity	<p>1. museum of Vancouver</p> <p>조를 정하여 조 별로 주제를 정하고 조사를 했습니다.</p> <p>2. Curling</p> <p>4명씩 팀을 정하여 컬링을 배우고 시합을 했습니다. 모두들 처음에는 어려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빠져들어 다리에 멍드는 것도 잊은 채 올림픽 버금가는 대결을 펼쳤습니다.</p> <p>3. Vancouver Aquarium</p> <p>모든 해양생물들을 눈 앞에서 볼 수 있고 보기 힘든 돌고래 펭귄 바다사자를 다 볼 수 있으며 가오리를 만질 수 있는 체험도 경험 할 수 있습니다. 아쿠아리움을 다 견학하면 스탠리 파크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</p>

	<p>4. Snow shoeing 눈 덮인 산을 특수 슈즈를 신고 등산하는 활동으로 따뜻한 옷을 입기를 매우 추천합니다. 힘든 활동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던 활동입니다.</p> <p>5. granville Island 조별 활동으로 마켓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granville Island를 구경했던 활동입니다.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풍족한 먹을거리, 여러 종류의 갤러리들이 많아 눈이 행복했던 활동입니다.</p>
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은 필수입니다. 눈이 오는 경우 버스와 트레인 이 멈추니 주의 하세요.
안전	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마약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. 밤에는 절 때 혼자 다니지 마세요.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v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홈스테이 할머니께서 아침밥도 매일 챙겨주시고 되게 쿨하신 성격이셔서 지내기 매우 편했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v)기타()</p> <p>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먹어보자는 생각에 외식을 주로 했습니다. 매우 비싸긴 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후회는 없습니다.</p>
교통	저는 트레인을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. 트레인은 빠르고 운행간격이 짧아서 버스보다 훨씬 편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운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 및 여행자보험	약 1,200,0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기념품, 쇼핑	약 \$200	
외식	약 \$500	저는 외식을 많이 한 편입니다.
여행비	약 \$200	
합계	약 \$9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홈스테이에서는 와이파이기가 잘 터지지만 야외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됩니다. 한국에서 2G정도의 유심칩을 사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밴쿠버는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. 가방에 넣어다닐 수 있는 작은 우산은 필수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야외활동으로 스노우 슈잉을 하는데 눈 덮인 산을 등산하는 활동이므로 두꺼운 옷과 겨울부츠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대여가 가능하지만 상당히 비쌉니다. 비행기 안에서 볼 드라마나 영화를 충분히 다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목 베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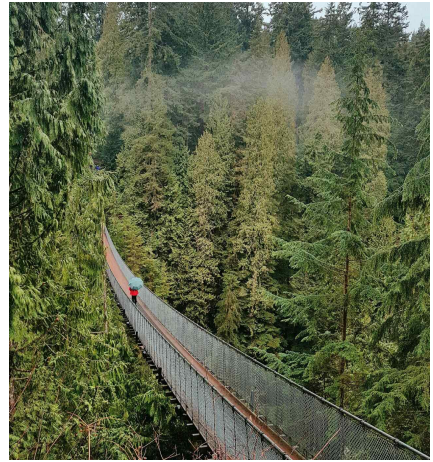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3주간의 여행인지라 영어실력이 엄청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영어듣기와 자신감은 높아졌습니다. 3주 동안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고 캐나다의 멋진 풍경과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홈스테이 할머니와도 많은 정이 들어 3주 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. 기숙사가 아닌 홈스테이에서 생활한 것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이 기회를 주신 순천향대학교와 랑가라 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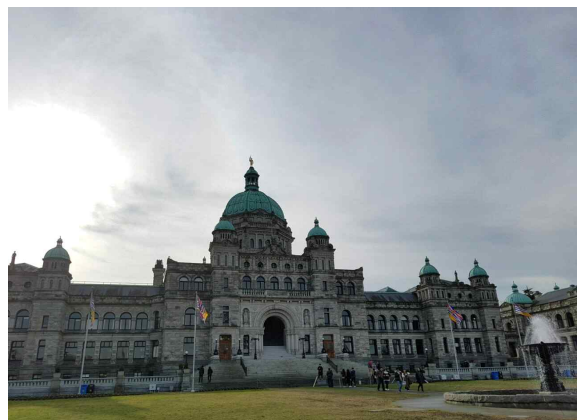
granville Island에서 먹었던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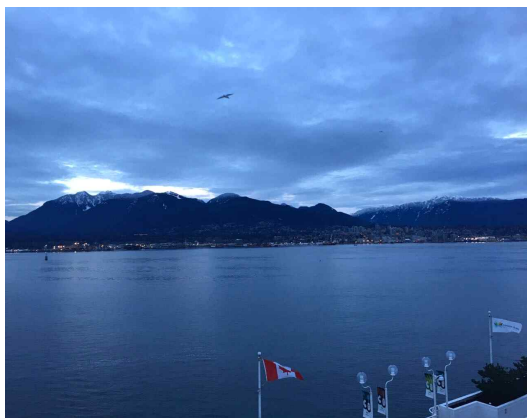
비오는 날 캐필라노 브릿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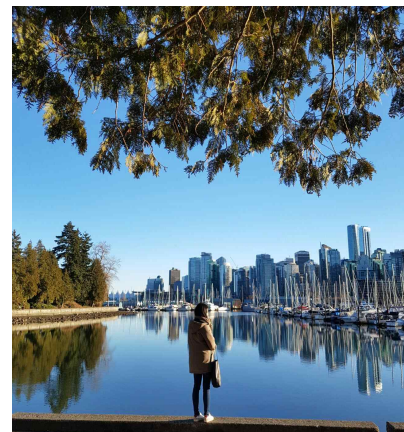
개스타운의 스팀클락



빅토리아의 BC legislature



캐나다 플레이스



스탠리 파크